

#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42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26년 4월 15일
4. 회부일자 : 2026년 4월 15일

### II.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안이유

-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조 9,426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1조 4,856억 7천 5백만원에  
대비하여 2.8%(1조 4,570억 1천 7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조 360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조 541억 3천 7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9,066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028억 8천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증감	%
계	52,942,692	51,485,675	1,457,017	2.8
일반회계	38,036,075	36,981,938	1,054,137	2.9
특별회계	14,906,617	14,503,737	402,880	2.8

3.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

가. 세입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70억 7천 3백만원으로, 증·감 조정이 없어 기정예산(470억 7천 3백만원)과 동일함.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증감	%
계	47,073	47,073	-	-
일반회계	26,389	26,389	-	-
도시개발특별회계	11,583	11,583	-	-
균형발전특별회계	9,100	9,100	-	-

## 나. 세출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351억 4천 5백만원) 대비 447억 9천 5백만원(19.0%) 증가한 2,799억 4천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7억 9천 5백만원(23.5%) 증가한 2,355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증감	
					%
총계	계	279,940	235,145	44,795	19.0
	행정운영경비	741	741	-	-
	재 무 활 동	26,273	22,113	4,160	18.8
	사 업 비	252,926	212,291	40,635	19.1
일 반 회 계	계	235,586	190,791	44,795	23.5
	행정운영경비	741	741	-	-
	재 무 활 동	25,680	21,520	4,160	19.3
	사 업 비	209,165	168,530	40,635	24.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계	31,072	31,072	-	-
	재 무 활 동	593	593	-	-
	사 업 비	30,479	30,479	-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계	13,282	13,282	-	-
	사 업 비	13,282	13,282	-	-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당초 2026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는 반면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지속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와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당초 배럴당 68달러에서 134달러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OECD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바 있음<sup>1)</sup>.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민생 안정(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9.7조원), 국채상환(1조원)을 내용으로 하는 25조 1,72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sup>2)</sup>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4월 10일에 정부 제출안보다 34억원을 순감한 25조 1,688억원으로 의결하였음.
- 이에 대하여 서울 시도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원이 증액(2.8%, 총 52조 9,427억원)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 자치구 지원(3,530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1) 기존 전망치 : 2.1%(2025.12.), 수정 전망치 : 1.7%(2026.3.)

2)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 규모는 26.2조원 규모이며, 총수입은 675.2조원에서 700.6조원(25.4조원 증가),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1조원(25.2조원 증가)으로 증가함.

## < 2026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단위 : 억원)

피해계층 밀착지원	▸ 소상공인 지원	811억원	1,202
	▸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	88억원	
	▸ 취약계층 지원	303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695억원	4,976
	▸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	281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원	1,529
자치구 지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원	3,530

## 2.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 가. 세입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470억 7천 3백만원)과 동일한 470억 7천 3백만원임.
- 이는 ▸ 「예산총칙」 제9조<sup>3)</sup>에 따라 간주처리한 내역이 없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감 조정도 없어, 본예산 편성내역(470억 7천 3백만원)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

3)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①	기정예산 ②=③+④	증감액	
			당초 본예산 ③	간주처리 ④ ①-②
<b>총계</b>	<b>47,073</b>	<b>47,073</b>	<b>47,073</b>	<b>-</b>
<b>일반회계</b>	<b>26,389</b>	<b>26,389</b>	<b>26,389</b>	<b>-</b>
세외수입	17,930	17,930	17,930	-
보조금	7,868	7,868	7,86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91	591	591	-
<b>도시개발특별회계</b>	<b>11,583</b>	<b>11,583</b>	<b>11,583</b>	<b>-</b>
보조금	4,710	4,710	4,710	-
지방채	6,280	6,280	6,28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93	593	593	-
<b>균형발전특별회계</b>	<b>9,100</b>	<b>9,100</b>	<b>9,100</b>	<b>-</b>
세외수입	0.3	0.3	0.3	-
보조금	9,100	9,100	9,100	-

### 나. 세출예산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799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2,351억 4천 5백만원) 대비 447억 9천 5백만원(19.0%) 증액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5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1,907억 9천 1백만원) 대비 447억 9천 5백만원(23.5%) 증액됨.
  - 이는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2억 5천 7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2억 6천만원),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154억 9천 5백만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41억 6천만원),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11억 7천 3백만원), ▶ ‘전통시장 행사 지원’ (12억 5천만원)을 포함한 7개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한 결과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3억 5천 4백만원<sup>4)</sup>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민생노동국 총계		(X21,678) 279,940	(X21,678) 235,145	(X-) 44,795	
일반회계 합계		(X7,868) 235,586	(X7,868) 190,791	(X-) 44,795	
소상공인 정책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x-) 35,723	(x-) 32,466	(x-) 3,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종합지원 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클리닉(1,600명→3,000명, 1,400명 증) : 10억 4천 6백만원</li> <li>▶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400명→500명, 100명 증) : 4억 2천 6백만원</li> <li>▶ 새 길 여는 폐업지원(4,000명→4,500명, 500명 증) : 17억 8천 5백만원</li> </ul> </li> </ul>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x-) 47,970	(x-) 28,710	(x-) 19,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보증료 재원 출연</li> <li>▶ 신용보증재단 : 80억원</li> <li>▶ 보증료재원 : 112억 6천만원</li> </ul>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x-) 23,997	(x-) 8,502	(x-) 15,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광역상품권(1,000억원) 발행 및페이백 지원 : 76억 5천 7백만원</li> <li>◦ 온라인 전용 상품권(500억원) 발행 및페이백 지원 : 78억 3천 8백만원</li> </ul>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x-) 1,411	(x-) 1,211	(x-) 200	◦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온라인 전용관 운영 및 할인 이벤트 지원 :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x-) 24,860	(x-) 20,700	(x-) 4,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신설·증액을 위한 이차보전 재원 전출</li> <li>▶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신설(1,000억원) 관련 전출 : 16억 7천만원</li> <li>▶ 희망동행자금 증액(3,000억원→4,500억원) 관련 전출 : 18억원</li> <li>▶ 서울배달상생자금 증액(200억원→400억원) 관련 전출 : 3억 3천만원</li> <li>▶ 산속드림자금 증액(500억원→800억원) 관련 전출 : 3억 6천만원</li> </ul>
상권 활성화과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x-) 2,468	(x-) 1,295	(x-) 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확대(50개소→100개소, 50개소 증) : 1억 5천 3백만원</li> <li>◦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확대(50개소→100개소, 50개소 증) : 10억 2천만원</li> </ul>
	전통시장 행사 지원	(x-) 7,102	(x-) 5,852	(x-) 1,250	◦ 소비심리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등 기획이벤트 운영(125개소 내외) : 12억 5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X4,710) 31,072	(X4,710) 31,072	(X-) -	
균형발전특별회계 합계		(X9,100) 13,282	(X9,100) 13,282	(X-) -	

4) 도시개발특별회계 310억 7천 2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32억 8천 2백만원.

### 3. 사업별 검토

#### 가.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34쪽)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146쪽)

-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92억 6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일반회계 재원 41억 6천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으로 전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및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47,970	28,710	19,260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4,860	20,700	4,160

- 현재 서울시는 융자계정을 활용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융자를 실행하고 서울시가 그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신설 및 기존 자금 증액에 따른 이차보전금 41억 6천만원을 융자계정으로 전출하고자 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세부내역 >**

구분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희망동행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속드림자금
지원대상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상생기업	저신용,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 소상공인
지원규모	1,000억원 (신설)	4,500억원 (당초 3,000억원, 1,500억원 증액)	400억원 (당초 200억원, 200억원 증액)	800억원 (당초 500억원, 300억원 증액)
지원조건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년간 2.5% 3년간 1.8%, 1년 거치 4년 <u>균분상환</u>	1억원 이내, 이차보전 1.8%, 2년 거치 5년 <u>균분상환</u>	1억원 이내, 이차보전 2.0% 1년 거치 4년 <u>균분상환</u>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1.8%, 1년 거치 4년 <u>균분상환</u>
이차보전금	16억 7천만원	18억	3억 3천만원	3억 6천만원

- 먼저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12개<sup>5)</sup>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외부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 및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자금의 요건 완화, 규모 확대 등 제도 내 조정방안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신규 자금을 신설하는 것은 유사·중복 성격의 자금이 병행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5) 육탕업, 여관업, 세탁업, 택배업, 배달업, 운송업, 농수축산물소매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나프타 기반 제품 도매업, 여행업, 민박업

- 특히 동 신규 자금은 이차보전에 더해 보증료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 유사 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중동전쟁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금 비교 >

구분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지원업종	12개 업종	8개 업종(현재)+4개 업종(추가예정)
이차보전율	2년간 2.5%, 3년간 1.8%	2년간 2.5%, 3년간 1.8%
보증료 지원 여부	○	×

- 또한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자금으로, 당초에는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1,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임.
- 특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sup>6)</sup>을 통해 장기 상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희망동행자금의 상환기간을 확대(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희망동행자금은 2024년에 3,000억원이 편성된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0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후 다시 3,20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2025년에는 2,300억원 규모로 운영되었음.

#### < 희망동행자금 지원 실적 추이 >

연도	2024년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포함)	3,000억원→4,000억원→3,200억원	2,300억원
융자 실행액	3,160억원	2,264억원

6) 2024. 8. 5. 개정

- 이러한 과거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4,500억원의 수요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은 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당초 200억원 규모였으나 200억원을 증액하여 400억원을 운영할 예정임.
- 그러나 동 자금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 촉진 및 외식업 중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외식업은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업종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 목적 또한 중동전쟁 대응이라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통한 비대면 간편심사 방식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300억원이 증액됨.
- 신속드림자금은 저신용자, 저소득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임차료 부담 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기간을 단축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당초 287억 1천만원에서 192억 6천만원이 증액된 479억 7천만원이 편성됨.
-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출연금 192억 6천만원은 보증료재원 112억 6천만원과 신용보증재원 80억원으로 구성됨.

##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19,260	
보증료재원	소 계	11,260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3,400	1,000억원(보증규모)*1.0%(보증료율) *3.4년(평균상환주기)
	희망동행자금	7,350	1,500억원(보증규모)*1.0%(보증료율) *4.9년(평균상환주기)
	신속드림자금	510	300억원(보증규모)*0.5%(보증료율) *3.4년(평균상환주기)
신용보증재원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8,000	1,000억원(보증규모)÷12.5배(운용배수)

- 먼저 보증료 112억 6천만원은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지불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을 통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그리고 신용보증재원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성하는 재원으로, 보증한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5배 이내)<sup>7)</sup>를 고려할 때 신용보증재원의 출연은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동 재단의 보증공급은 연초 계획 대비 3천억원이 증액된 3조 9천억원으로 운용될 예정으로 신용보증재원 80 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8.6배수 내외의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시 출연에 따른 보증공급 규모 및 운용배수 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상)	
				본예산	추경예산
보증공급액	31,349	31,366	35,918	36,000	39,000
(A) 보증잔액	97,313	80,859	70,047	75,000	75,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1,191	1,120	1,576	1,352	1,432
서울시	100	189	286	232	312
정 부	129	3	53	20	20
자치구	113	44	93	100	100
금융회사 법정출연	120	138	181	121	121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729	746	963	879	879
당기순손실	1,512	2,052	1,225	1,630	1,6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	-7	0	0
(B) 기본재산	9,477	8,547	8,905	8,627	8,684
운용배수=(A/B)	10.3	9.5	7.9	8.7	8.6

※ 연간 출연금 조성액은 보증료 보전재원 및 브릿지 보증 재원을 제외한 신용보증재원 기준임

※ 기본재산=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 보정)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이와 같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경영 안정과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경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예산 확정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증심사, 대출 실행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증공급 확대 및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부실 발생 가능성 및 손실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단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129쪽)

- 동 사업은 기정예산(324억 6천 7백만원) 대비 32억 5천 7백만원(10.0%) 증액된 357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 ‘자영업클리닉’,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 내역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2억 5천 7백만원)가 증액됨.

###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출내역
계		35,723	32,467	3,25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	42	-	
	사무관리비	1	1	-	
	국외업무여비	30	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	30	-	
	특정업무경비	95	9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	500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25	31,758	3,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종합지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클리닉(1,600명→3,000명, 1,400명 증) : 10억 4천 6백만원</li> <li>▶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400명→500명, 100명 증) : 4억 2천 6백만원</li> <li>▶ 새 길 여는 폐업지원(4,000명→4,500명, 500명 증) : 17억 8천 5백만원</li> </ul> </li> </ul>

- 이 중 ‘자영업클리닉’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소상공인 1,600명에게 평균 2.5회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10억원<sup>8)</sup>이 편성되었음.

8) ‘자영업클리닉’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10억원) = 25만원 × 1,600명 × 2.5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 평균 4회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10억원<sup>9)</sup>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은 1,368명으로 증가한 반면 컨설팅 제공횟수가 평균 2.565회로 감소하여 사업비 중 1억 2천 3백만원이 미집행된바,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 제공횟수를 축소(평균 4회→2.5회)하는 대신 지원대상을 확대(1,000명→1,600명)하여 동일 규모(10억원)로 편성된 것임.
-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따른 경영 애로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1,000명에게 평균 2.5회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6억 2천 5백만원,<sup>10)</sup>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착한가격업소 400개소에 평균 4회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집중 지원하기 위한 4억원,<sup>11)</sup> ▶대행수수료 2천 1백만원<sup>12)</sup>을 포함하여 총 10억 4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대상은 2025년도(1,000명)보다 3배로 증가한 3,000명에 달하나,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영업클리닉’의 지원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8년간 단 1번도 2,000명을 초과한 사례가 없어, 사업물량(3,000명)의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한 사안임.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중 ‘자영업클리닉’ 추진현황 >

(단위: 명)

구 분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지원대상 <sup>주1)</sup> (4.15.기준)
자영업 클리닉	1,774	1,939	896	1,640	1,175	398	1,441	1,368	623

※ 자료근거 : 서울신용보증재단, 「제334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2026. 3), p.58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1) 2025년도까지의 실적은 지원이 완료된 사례만 포함된 것이나, 2026년도의 지원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026. 4. 15.)을 기준으로 지원 완료된 사례뿐만 아니라 지원 중인 사례도 포함된 것임.

9) ‘자영업클리닉’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10억원) = 25만원 × 1,000명 × 4회

10)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6억 2천 5백만원) = 25만원 × 1,000명 × 2.5회

11) 추가경정예산안 중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컨설팅 비용(4억원) = 25만원 × 400개소 × 4회

12) ‘자영업클리닉’ 증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2천 1백만원) = (6억 2천 5백만원 + 4억원) × 2%

- 다음으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서울시 소재 40세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수준별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월 9일 서울시는 「2026 서울특별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을 통해 지원대상을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음.<sup>13)</sup>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지원대상을 본예산(400명)보다 100명 증가한 5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서울시의 소관부서(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음.

#### <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 >

##### < 민생노동국 제출내용 >

##### □ 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실적('26. 3. 31.기준)

구 분	사 업 명	목표	실적	달성률
창 업 기	(생략)			
성 장 속 기	자영업 클리닉(명)	1,600	176	11.0%
	<b>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명)</b>	<b>500</b>	8	1.6%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명)	3,000	352	11.7%
재 도 전	(생략)			
합 계		24,860	6,712	27.0%

13) 서울특별시, 「2026 서울특별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2026. 2), p.10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K자형 양극화 속 ‘약한 고리’ 먼저 챙긴다 …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 가동”(2026. 2. 9), p.3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지원대상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6 서울특별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템」에 포함된 내용 중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임. 동 프로젝트는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자영업클리닉’을 통해 원포인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내용 >

구 분		'26년 계획 (A)	'26년 3월말 (B)	진도율 (B/A)
창 업 기	(생략)	(생략)		
성 장 기	자 영 업 클 리 닉	1,600명	176명	11.0%
	<b>디 지 털 전 환 지 원</b>	<b>500명</b>	8명	1.6%
	위 기 소 상 공 인 선 제 지 원	3,000명	352명	11.7%
재 도 전 기	(생략)	(생략)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제33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2026. 4), p.18  
 서울신용보증재단, 「제335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 (2026. 4), p.13

- 그러나 제335회 임시회를 위해 서울시(민생노동국)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2026년 3월말 기준 목표치와 계획이 500명 지원으로 수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기관이 사업비 확보를 전제로 재정사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14)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을 형식화하는 것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비용 지원, 전직 지원 등 폐업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4,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14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폐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원규모를 500명 확대하기 위해 17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례임.

14)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 다.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별설명서 138쪽)

- 동 사업은 2020년도에 도입된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sup>15)</sup>의 사용처가 자치구로 한정되어 시민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85억 2백만원)<sup>16)</sup> 대비 154억 9천 5백만원(182.3%) 증액된 239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됨.

###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출내역
계	23,997	8,502	15,495	
사무 관리비	23,997	8,502	15,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광역상품권(1,000억원) 발행 : 56억 4천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5% 할인액을 보전) : 50억원 [ 1,000억원 × 5%(할인율) ]</li> <li>▶ 상품권 발행수수료 : 6억 4천 4백만원 [ 1,000억원 × 0.644%(수수료율) ]</li> </ul> </li> <li>◦ 오프라인 광역상품권(1,000억원) 사용 시 사용금액의 일부(2%)를 상품권 형태로페이백 : 20억 1천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페이백을 위해 추가 발행, 지급되는 상품권에 대한 보전금(발행액 전액을 보전) : 20억원 [ 1,000억원 × 2%(페이백 비율) ]</li> <li>▶ 상품권 발행수수료 : 1천 3백만원 [ 1,000억원 × 2%(페이백 비율) × 0.644%(수수료율) ]</li> </ul> </li> <li>◦ 온라인 전용 상품권(500억원) 발행 : 53억 2천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10% 할인액을 보전) : 50억원 [ 500억원 × 10%(할인율) ]</li> <li>▶ 상품권 발행수수료 : 3억 2천 2백만원 [ 500억원 × 0.644%(수수료율) ]</li> </ul> </li> <li>◦ 온라인 전용 상품권(500억원) 사용 시 사용금액의 일부(5%)를 상품권 형태로페이백 : 25억 1천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페이백을 위해 추가 발행, 지급되는 상품권에 대한 보전금(발행액 전액을 보전) : 25억원 [ 500억원 × 5%(페이백 비율) ]</li> <li>▶ 상품권 발행수수료 : 1천 6백만원 [ 500억원 × 5%(페이백 비율) × 0.644%(수수료율) ]</li> </ul> </li> </ul>

15)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 증대 및 가계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발행·운영을 시작한 것임.

16)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오프라인 광역상품권 1,5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85억 2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계획(1,500억원)<sup>17)</sup>보다 1,500억원 증가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페이백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부를 상품권 형태로 페이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154억 9천 5백만원)가 증액 편성된 것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광역상품권은 당초계획과 동일하게 5%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발행물량은 1,000억원 확대하기 위한 할인보전금 50억원 및 발행수수료 6억 4천 4백만원과, ▶오프라인 광역상품권 사용금액의 2%를 페이백하기 위해 추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보전금 20억원 및 발행수수료 1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아울러 ▶온라인 전용상품권은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5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한 할인보전금 50억원 및 발행수수료 3억 2천 2백만원과, ▶온라인 전용상품권 사용금액의 5%를 페이백하기 위해 추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보전금 25억원 및 발행수수료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sup>18)</sup>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은 지양하되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활용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sup>19)</sup>은

17)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704 (2026. 1. 16.) “2026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계획”

18)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 6), p.7, p.9

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6. 기타

□ (발행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 지역 공공 배달앱·쇼핑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거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활용

Ⅲ.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4.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율 설정(법 제15조제2항)  
 ○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은 지양  
 ○ 다만,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가능

19)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사업 및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게 10% 범위에서 할인판매하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오프라인 광역상품권에는 5%, 온라인 전용 상품권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광역상품권에는 2%, 온라인 전용 상품권에는 5%의페이백을 적용하려는 사례로 이해됨.
- 참고로 페이백은 일부 자치구<sup>20)</sup>가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광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단기간 내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상품권 사용 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임.

< 연도별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페이백율 >

(단위: 억원)

구 분		2022~2025 합계				2026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기준	추경안 기준	
계		1,900	737	1,500	1,495	5,632	1,500	3,000 <sup>주1)</sup>
	오프라인 광역상품권	1,750 (7% 할인)	600 (7% 할인)	1,500 (5% 할인)	1,495 (5% 할인)	5,345	1,500 (5% 할인)	2,500 <sup>주1)</sup> (5% 할인 / 2% 페이백)
	온라인 전용 상품권	150 (7% 할인)	137 (7% 할인)	-	-	287	-	500 <sup>주1)</sup> (10% 할인 / 5% 페이백)

※ 주1) 사용금액의 일부를 페이백하기 위해 추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페이백 보전금(오프라인 광역상품권의 경우 2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의 경우 25억원)이 모두 활용되면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45억원 증가될 수 있음.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 중구(2% 페이백), 성북구(5% 페이백), 강서구(5% 페이백), 구로구(5% 페이백), 금천구(5% 페이백), 관악구(2% 페이백), 강남구(5% 페이백).

- 동 사업은 지난 1월 수립한 2026년도 사업계획<sup>21)</sup>과는 달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발행형태와 인센티브 등 사업내용까지 변경하려는 것이나,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026. 4. 15.)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계획과 달리 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어,<sup>22)</sup> 동 사업이 변경계획 수립 없이 발행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요지 >

지역화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히거나, 기존 계획과 달리 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는 동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됨.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704 (2026. 1. 16.) “2026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계획”

- 따라서 소관부서(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는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 사업의 추진목적에 따라 소비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변경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21)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704 (2026. 1. 16.) “2026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계획”

2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342 (2025. 12. 30.)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p.7)에도 상품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등을 기재하거나 대가 없는 기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 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142쪽)

- 동 사업은 기정예산(12억 1천 1백만원) 대비 2억원(16.5%) 증액된 14억 1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기획전’을 운영하고 기획전 개최 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2억원)가 증액 편성된 것임.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 출 내 역
계		1,411	1,211	200	
	사무관리비	1,211	1,211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	200	○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기획전 운영 : 2억원 (전용관 운영 유통사 2개소 × 1억원)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대두 등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8월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온라인 기획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온라인 기획전을 지원하여 온 바, ▶시 차원에서는 민간 유통사(플랫폼사)로 하여금 온라인에 입점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획전을 홍보하는 한편, ▶유통사는 할인쿠폰 발행 외에도 배너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품 판매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음.

### < 2020~2025 온라인 기획전 추진실적 >

연도	기획전 개최시기	할인쿠폰 발행지원 ①	참여유통사 (플랫폼사) 수	참여업체 (소상공인) 수	총매출액 ②	쿠폰지원 대비 매출발생 규모 ②/①
2020	11.23~12.11	12.5억원	7개사	5,936개사	173억원	13.8배
2021	6.21~7.11	4.9억원	5개사	1,808개사	129억원	26.3배
	12.1~12.26	5.8억원	6개사	1,891개사	170억원	29.2배
2022	11.1~11.18	2억원	6개사	19,999개사	78억원	39.0배
	12.1~12.23	0.5억원	1개사	499개사	2.9억원	5.8배
2023	7.17~7.28	1억원	4개사	12,253개사	41.8억원	41.8배
	9.11~9.22	1억원	4개사	13,095개사	43.1억원	43.1배
	12.11~12.25	1.2억원	5개사	13,392개사	54.9억원	45.8배
2024	9.23~12.31	2.4억원	2개사	422개사	59.8억원	24.9배
2025	기획전 미추진					

- 그러나 온라인 기획전은 일회성 프로모션으로서 단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으나 이를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2022년도부터 동 사업 추진 시 온라인 기획전보다는 소상공인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2025년도부터는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 2026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 “그간 업무추진 현황” >

#### □ 서울시 그간 업무추진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 대두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20년 8월부터 지원사업 운영
  - '20년~'21년 오픈마켓 기획전 중심으로 운영 시작
- 초기의 일회성 기획전 중심의 운영에서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개선
  - '22년 집중지원 신설 및 목표 유통채널 맞춤의 지원
  - '23년 클라우드 펀딩 지원 신설, '24년 해외시장 신설 및 마케팅 지원 확대
- 최근 보조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업체 제한 및 절차상 비효율성 보완
  - '25년 단일 과업 지원 대신 복수 과업별 전문 용역사 선정 운영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2446 (2026. 2. 23.) “'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업비(2억원)를 증액 편성한 사안으로 이해됨.
- 다만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이 그 수혜를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지원내용·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026. 4. 15.)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내용은 물론 사업효과도 불명확한 상황임.
- 따라서 소관부서(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마.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150쪽)

- 동 사업은 골목상권을 구획화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유도 행사 등 공동마케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12억 9천 5백만원) 대비 11억 7천 3백만원(90.6%) 증액된 24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2026년도 본예산에 골목형상점가 50개소의 지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2억 9천 5백만원)와 50개소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10억원)가 기 편성되어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골목상권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및 육성 지원대상을 각각 2배(50개소→100개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산 출 내 역
계	2,468	1,295	1,17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68	1,295 주1)	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1억 5천 3백만원 (306만원×50개소)</li> <li>◦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 10억 2천만원 (2,040만원×50개소)</li> </ul>

※ 주1) 2026년도 본예산에 골목형상점가 50개소의 지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2억 9천 5백만원)와 50개소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10억원)가 편성된 것임.

-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대상으로 편입하고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11월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sup>23)</sup>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은 당초 2025년도에는 100개소,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각각 150개소, 2028년도와 2029년도에는 각각 100개소를 포함하여 5년간 총 600개소를 지원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는 연도 중 지원대상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150개소→50개소)하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 악화 대응을 사유로 지원대상을 일부나마 확대(50개소→100개소)하여 복원하는 사안임.

## < 당초의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원규모	600개	100개소	150개소	150개소	100개소	100개소
예산	132억원	22억원	33억원	33억원	22억원	22억원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5469 (2024. 11. 4.)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

23)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5469 (2024. 11. 4.)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중 19개 자치구<sup>24)</sup>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대행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도 자치구, 소상공인진흥공단<sup>25)</sup> 등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지원물량을 수시로 변경하기보다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도 중 25개 자치구에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안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규제완화 표준안」을 배포하며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sup>26)</sup>
-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간 해마다 대행기간 종료시점을 연말(12월 31일)까지로 하는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재단이 협약체결 이후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정 및 육성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바, 2025년도에는 4월 30일, 2026년도에는 3월 25일에 협약이 체결되어 매년 사업 착수시점이 1분기 이후로 지연되고 있음.

24)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25)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5년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실행계획(안)」(2025. 5), p.4 참조.

26)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5723 (2025. 5. 8.) “서울시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상업수행기관 안내”

3. … 사업수행기관을 아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및 재단에서는 상호 적극 협조하여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상권지원센터, 4개 지역본부 및 25개 지점)

나. 협조요청 사항 : 사업설명회(구청 협조 기반 사전설명회 등), 사업홍보,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관련 제반업무(상권조사, 후보지 발굴 및 구역적합도 판정 사전 자문 등)

## < 현행 협약서상 대항기간 관련 규정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사업 대항 협약서」(2026. 3. 25. 체결) 제4조(대항기간)

-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대항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항기간 만료시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 특히 2026년도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시점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sup>27)</sup>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2026. 4. 4.)부터 선거 당일(2026. 6. 3.)까지는 행사 개최가 제한되어, 동 사업 중 방문유도 행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4일 이후로 전망되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5년도의 사업 수행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sup>28)</sup>
-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은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사업 착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항기간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다른 대항사업과 같이 ▶서울시가 갱신거절

27)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8) 서울신용보증재단, 「2025년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수행 결과보고」(2026. 2), p.18~19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되도록 변경하거나<sup>29)</sup> ▶사업 종료시점까지로 설정하되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sup>30)</sup>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sup>31)</sup>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sup>32)</sup> 등을 근거로 삼아 추진되고 있으나, 전자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상권 그 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상 명확한 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sup>33)</sup> 서울시(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026. 4. 15.)을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임.

29)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행사업 중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대행기간이 자동갱신 되도록 하고 있음.

30)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행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사업 종료시점까지로 설정하고, 필요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의하여 대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1)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 조례 제2조제4호는 “전통시장 등”을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음.

3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3)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25. 12.), p.197

## 바. 전통시장 행사 지원

(사업별설명서 153쪽)

- 동 사업은 중동전쟁과 3고(3高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이벤트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자 기정예산(58억 5천 2백만원)보다 12억 5천만원(21.4%) 증액된 71억 2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 ‘전통시장 행사 지원’ 기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간 편성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사업내역	예산액	사업내역	예산액	
계		5,852		7,102	1,250
사무관리비	소계	7	소계	7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7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7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계	5	소계	5	-
	전통시장 행사 지원	5	전통시장 행사 지원	5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소계	5,840	소계	7,090	1,250
	설·추석 명절 이벤트	500	설·추석 명절 이벤트	500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30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300	-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4,990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4,990	-
	전통시장 방역 지원	50	전통시장 방역 지원	50	-
	<u>&lt;신 설&gt;</u>		<u>기획이벤트</u> (1천만원 × 125개소) <sup>주1)</sup>	<u>1,250</u>	<u>1,250</u>

※ 주1) 사업별설명서(p.154)에 기재된 산출내역임.

- ‘기획이벤트 지원’은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125개소 내외의 ‘전통시장 등’<sup>34)</sup>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

34)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포함된 것임.

에 따라 일정 액면가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시장규모에 따라 최소 8백만원에서 최대 1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임.

### < ‘기획이벤트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기간(사업계획 수립·신청~결과·정산보고) : '26. 5. ~ 8.
  - ※ 행사기간 : '26. 6. 24.(수) ~ 6. 30.(화), 총 7일간, 조기소진 시 행사종료
  - 사업대상 :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규모 : 약 125개소 내외, 시장규모에 따라 8백만원~1천 4백만원 차등지원
- | 시장규모 | 대형        | 중대형               | 중형              | 소형      |
|------|-----------|-------------------|-----------------|---------|
| 점포수  | 1,000개 이상 |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100개 미만 |
| 지원금액 | 1천 4백만원   | 1천 2백만원           | 1천만원            | 8백만원    |
- 사업예산 : 12억 5천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방법 : 시(市) 공모 선정에 따른 시장별 자체 행사 추진(자치구 보조금 교부)
  - 사업내용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집중 가격할인행사 추진
    - 시장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환급) 추진
    - 환급대상 : 선정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 환급조건 : 결제수단(카드·현금 등)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행사기간 영수증 누적 합산 가능
    - 환급한도 : 행사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1인당 한번, 최대 3만원
    - 환급기준 :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3% 환급
- | 구매금액 |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 |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 6만원 이상 9만원 미만 | 9만원 이상 |
|------|------------------|---------------|---------------|--------|
| 환급금액 | 5천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 환급방법 : 구매 영수증 지참 후 시장 내 환급장소 방문하여 디지털온누리상품권(디지털온누리앱 내 '선물')로 환급
    - ※ 단 현장 상황, 외국인 관광객, 디지털 취약계층 등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가능

※ 자료근거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4982 (2026. 4. 14.) “2026년 서울시 가계보통 페이백 주간사업 추진계획”

- 기존에 추진되어 온 ‘설·추석 명절 이벤트’와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의 경우에도 행사 수행주체(상인회 또는 자치구)가 상품권 환급에 관한 사항을 행사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sup>35)</sup>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되는 ‘기획이벤트 지원’의 경우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이 행사의 주된 부분<sup>36)</sup>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음.

35) 다만 이 경우에는 환급(페이백)에 관한 사항은 행사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가 종료된 후 동일한 시기(6월 24일~30일)에 125개소 내외의 ‘전통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급 행사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심리 회복과 해당 시장의 매출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26년 1월말 기준 서울시 관내의 ‘전통시장 등’은 총 521개이며 ‘기획이벤트 지원’을 통해 125개소 내외의 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같은 시기에 환급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시장의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소관부서(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는 ‘기획이벤트 지원’을 추진한 이후 지원대상 시장은 물론 미지원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동일 행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
김 혜 진	02-2180-8057

36) ‘기획이벤트 지원’의 경우 행사 수행주체인 상인회가 사업계획(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비 전체를 환급대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비의 20% 이상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행사물품 등 임차비, 사무용품비)로 반영하면 나머지(최대 80%)는 환급대금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4982 (2026. 4. 14.) “2026년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지백 주간사업 추진계획”